

# 개헌 모임 “지금 이 적기... 때 놓치지 말자”

### 여야 의원들, 이달내 특위 구성

### 이재오 “내년 상반기 지나면 못해”

### 원혜영 “내년 초까지 방향 잡아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개헌에 전성하는 여야 의원들의 모임인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활동을 재개하고 개헌론 재점화에 나섰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한림대 최태욱 교수로부터 ‘2020년 체제를 위한 정치개혁과 개헌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청취했다.

이날 참석 의원들은 차기 총선과 대선 등을 감안한다면 이달 내에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독자적인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모임을 주도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0월중 개헌특위를 구성해 금년 내에 조문작업을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안에 개헌 작업이 완성되도록 해 달라”며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바로 20대 총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개헌에 몰두할 수 없고 총선을 지나면 바로 대선이라 개헌을 논의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대통령 중심제로 왔기 때문에 모든 제도와 권력이 대통령에게 몰려 있다”며 “이것을 분권하지 않으면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개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데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는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남북관계나 경제양극화 등 중장기적 국가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력구조 개편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비롯해 기존 ‘87년 체제’ 헌법의 구간을 전반적으로 손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개헌 논의의 열기

1일 오전 국회에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주관으로 열린 최태욱 교수 초청 개헌 강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왼쪽)과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가운데는 최태욱 한림대교수. /연합뉴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개헌을 말하면 99.9%가 권력구조에만 집중하지만, 87년 체제 헌법은 지금 국민 생활양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식 시대 유물”이라며 “국민의 기본권과 자치제, 통일 문제 등 분야도 권력구조 못지 않게 바뀌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이학영 의원은 “개헌 문제가 항상 정치인 중심으로 가다보니 국민들의 새로운 욕구와 권

리추구 등과 함께 가지 못했다”며 “정치권 밖에서의 운동과 함께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 교수는 이상적 권력구조로 비례대표제를 기반한 유럽식 내각제를 제안한 뒤, “2016년 총선이 비례성 높은 새 선거제도에 의해 치러질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2020년 총선이 합의된 민주체제 출범의 기점이 될 것”이라며 2019년까지 개헌을 이루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헌 모임 회원이자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년 초까지 개헌에 대한 큰 틀과 방향이 잡히지 않으면 총선 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하나의 기동권 질서가 형성된다”며 “이번 정기국회 중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힘을 보탰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벼룩도 낫짝이 있지”

### 이정현 최고위원, 세비 인상 반대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내년 세비 인상에도 반대론을 폈다. 이 최고위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내년 국회 의원 세비를 3.8% 인상한다는 안에 예결위원으로서 분명히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벼룩도 낫짝이 있다고 했다. 우리 국회가 무슨 낫으로 세비 인상안에 스스로 동의한단 말이냐”면서 “이것은 염치의 문제이고 양심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낫 뜨거워 찬성도 동의도 할 수 없다. 이런 사안이 논란이 되는 것만으로도 몸이 오그라들 정도로 부끄럽다”며 “19대 국회 들어 작년과 올해에 국민에게 보여준 것만으로도 민낯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인상거부가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일반 공무원인 국회 사무직 직원 봉급 인상은 이와 별개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회의원 세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3.8% 만큼 오르는 것으로 돼 있다. 의원 세비는 2011년 1억 2969만원, 2012년 1억 3796만원으로 인상됐으며, 지난해와 올해에는 동결됐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김성주 한적 총재 후보

### 5년간 적십자 회비 안내

대한적십자사 총재로 선출된 김성주(여·57) 성주그룹 회장이 5년간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1일 “김성주 후보자는 적십자 회비 납부조치가 가능한 최근 5년간 단 한번도 적십자 회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일반 사업자 분류된 김 선출자의 적십자 회비는 1년에 3만원씩, 5년간 총 15만원이다.

김 의원은 “기업을 하면서 적십자 활동에 아무 관심이 없어 회비도 내지 않은 총재가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회비 납부를 독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또 “중앙위원회에서 김 선출자를 단수로 추천하고 단 11분 만에 총재를 결정했다”며 “대선공신 낙하산 인사에 대해 적십자사 중앙위원회가 거수기 노릇을 충실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선출자는 이런 사실이 논란이 되자 이날 5년간 회비를 포함한 총 100만원의 특별 회비를 적십자사에 냈다.

한적 관계자는 “김 선출자는 2012년 외환은행 나눔재단을 통해 적십자사에 8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윤장현 시장 5억5000만원, 이낙연 지사 8억7000만원 사용

### ■ 지방선거 당선자 선거 비용

### 남경필 35억 시·도지사 중 1위

### 원희룡 제주지사는 2억 ‘최저’

지난 6·4 지방선거 당선자 중 선거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한 사람은 누구일까.

1일 위례시민연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 공개를 신청해 받은 자료를 보면 광역 시·도지사 중에서는 남경필(새누리당) 경기지사가 35억 2801만원을 사용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박윤순(새정치민주연합, 이하 새정연) 서울시장(33억 7396만원), 홍준표(새누리당) 경남지사(14억 4496만원) 등 순이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5억 5627만원을, 이낙연 전남지사는 8억 7717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지사 중 최저액 사용자는 원희룡(새누리당) 제주지사로, 남 경기지사가 사용한 액수의 16분의 1 가량인 2억 2162만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가장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한 사람은 김진표(새정연) 경기지사 후보로, 41억 1683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시·도교육감 중에서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39억 176만원을 써 최고액 사용자로,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3억 9472만원을 써 최저액 사용자로 기록됐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6억 1886만원을,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12억 63만원을 지출했다.

광주시 5개 구청장 중에서는 송광운 북구청장이 2억 353만원을 써 1위를, 노희용 동구청장은 가장

적은 1억 1888만 4000원을 사용했다.

전남 22개 시군 자치단체장에서는 주철현 여수시장이 1억 8524만원으로 가장 많이 썼고, 서기동 구례군수가 7454만원을 지출해 가장 적었다.

사용한 선거비용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보전받은 광역 시·도지사 후보자는 김진표(새정연) 경기지사 후보로, 38억 1714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7억 9231만원을, 윤장현 시장은 4억 8520만원을 보전받았다. 장휘국 교육감과 장만채 교육감도 각각 5억 4177만원, 11억 7055만원을 보전받았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조사결과 선거비용을 많이 쓸수록 당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거비용을 국민이 부담하는 만큼 제한액을 대폭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보성 ‘이장임명 무효확인 청구’

### 전직 이장부인 임명 취소될 듯

이장선거를 둘러싸고 갈등(광주일보 9월 29일자 2면)을 빚어온 보성군 문덕면사무소를 상대로 제기된 ‘이장임명 무효확인 및 이행청구’에서 지난 2월 선거에서 당선된 C(53)씨의 주장이 인용됐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0일 열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C씨의 주장에 타당성이 인정돼 지난 7월 이장선거에서 당선된 전직 이장 A(56)씨의 부인 B(53)씨의 이장 임명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C씨가 이장으로 당선된 지난 2월 주민총회에서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덕면사무소는 행정심판 결과를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C씨는 “당시 면장이 주민총회 결과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이 마을 분쟁의 원인이 됐다”며 “앞으로 이장선거와 관련된 각종 고소와 고발을 양자구 취소하고 마을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

##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수술 방법**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 각막에 초정밀 미세 미세 레이저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 부작용: 수술 초기 야간 빛반짝, 노안라식 수술시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맑은 피부과·성형외과

·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최신 30여종)

항노화치료

기미클리닉

성형외과

지방이식 흡입

모발이식 관리

에스텍

###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① 리프팅레이저: 볼레리, 써미지, 웨너트 복합치료

② 피드백 레이저: 스무스빔, 아이솔 브이빔, 프락셀

③ 체오 레이저: 쉐들렉스, 디오오우즈

④ 피부 미백: 쉐들렉스, 쉐들렉스, 쉐들렉스 레이저

⑤ 주름·흉터: 프락셀, 울트라펄스, 프랙토라

⑥ 모공: 엔티지, 프락셀5종

⑦ 비인: 네오모노, 지방흡입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이비영원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텍: 385-0009

[문암점] 문화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텍: 525-7555

www.clear-skin.co.kr | www.s-thetic.co.kr